

보 도 자 료

Press Release

2025. 4. 15
쪽수 4장 / 사진자료 2장

- 배 포 : 2025. 4. 15.
- 제 공 : 경기도미술관
- 사업담당 : 김현정 학예연구사 (031-481-7033)
- 홍보담당 : 유채린 학예연구사 (031-481-7043)

경기도미술관 신진작가 옴니버스전 아티스트 토크

- ▶ 신진작가 옴니버스전 - 《박예나 : *Invesium* 뒤집힌 틈》의 전시 연계 프로그램
- ▶ 출품작 〈사건의 부분_챔버 n.3〉 관련한 두 명의 패널 초청 아티스트 토크
 - 아티스트 토크
 - 일시 : 2025년 4월 25일(금) 오후 3시~5시
 - 장소 : 경기도미술관 세미나실
 - 초청패널
 - 박예나 작가
 - 유은순 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 학예연구사
 - 오영진 서울과기대 융합교양학부 초빙조교수

경기문화재단 경기도미술관(관장 전승보)은 3월 20일부터 5월 18일까지 《2025 신진작가 옴니버스전(I)-박예나》을 진행 중이다. 이 전시는 경기도미술관이 꾸준한 관심을 기울여 온 신진작가 지원 프로그램의 일환이다. 그 첫 번째 전시는 박예나 작가의 《Inversium: 뒤집힌 틈》이다.

4월 25일(금)에 진행되는 아티스트 토크는 참여작가 박예나의 신작 〈사건의 부분_챔버 n.3〉을 중심으로 작가가 최근 집중적으로 탐구하고 가설을 세워서 발표해 온 '아티텍타' 개념과 인공생태계를 상상하는 그만의 독특한 시선을 생각하고자 한다. 패널로 참여하는 유은순, 오영진은 작가의 이러한 사유를 공유하며 개별 연구와 맞닿는 지점을 언급하며 박예나의 작업에서 새로운 발견을 위한 대화를 이어가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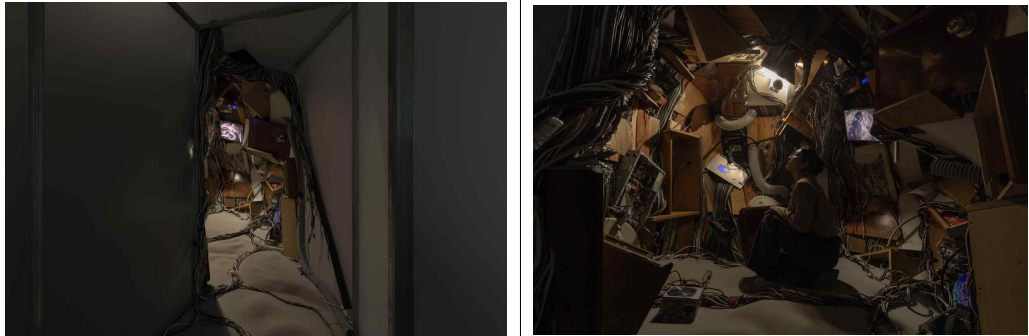
시간이 될 것이다.

박예나의 <사건의 부분_챔버 n.3>(2025)은 2024년에 진행되었던 개인전 《Interstitium》으로부터 다시 선보이는 융합체 설치이다. '간질'이라는 1차적 사전적 의미로 검색되는 이 영문 제목은 그의 작업이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압도감과 일치하는 듯하다. 올해 그의 아티팩트는 경기도미술관에서 한층 새로운 방식으로 증식하고 거대해진 모습이다. 아티팩트는 인공[artificial], 사물[object], 데이터[data]를 조합한 용어이다. 박예나는 아티팩트를 인간을 숙주로 능동적인 증식을 꾀하고 정보의 세계 속에서 자신의 생존을 위해 인간을 사용하는 새로운 생명체로 설정했다. 즉 인간을 편리하게 만들기 위한 최선의 형식으로 발현된 장치와 데이터가 인간을 가장 깊이 알고 있을 것이라는 작가의 가설에서 출발한 것이다.

4월 7일(월)부터 4월 25일(금)까지 경기도미술관 누리집(gmoma.ggcf.kr)과 경기문화재단 누리집(ggcf.kr)을 통해 사전 신청 가능하며, 4월 25일 당일 현장 접수도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미술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붙임자료]

1. 작품 이미지(2점)

혼합재료, 가변크기	 <사건의 부분_챔버 n.3>, 2025, 혼합재료, 가변크기 <i>Part of the Incident Chamber n.3</i>, 2025, Mixed media, dimension variable
---------------	---

2. 작가소개

박예나

박예나는 인공 문명에 대한 관심을 설치와 뉴미디어 작업으로 풀어가고 있다. 인공물과 인간이 관계 맺는 양상을 관찰하며, 인간의 효율적 사용을 목적으로 구축된 인공 환경이 다시금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통제하는 상황에 주목한다. 그의 작업 속에서 인공물들은 시공간과 현실-가상의 경계를 넘나들며, 스스로 생동하는 존재로 변모하여 등장한다. 인간의 활동을 양분으로 삼아 번성해 나가는 또 다른 생명체와 미지의 세계를 상상함을 통해, 자연 순환 속에서 해체될 인간 중심적 질서와, 새롭게 생겨 날 중심의 출현에 대해 사유하게 한다.

3. 패넌 소개

오영진

2015년부터 한양대학교 에리카 교과목 [소프트웨어와 인문비평]과 [기계비평]을 만들었다. 컴퓨터게임과 웹툰, 소셜 네트워크 등으로 대변되는 디지털 문화의 미학과 정치성을 연구하고 있다. 시리아난민을 소재로 한 웹반응형 인터랙티브 스토리 <햇살 아래서>(2018)의 공동개발자이다. 가상세계에서 비극적 사건의 장소를 체험하는 다크투어리즘 <에란겔: 다크투어>(2021.03.20-21)와 학술대회 [SF와 지정학적 미학] 연계 메타버스 <끝나지 않는 항해>(2021.12.06~19), <AI공포라디오쇼>(2022.08.04. 아트센터나비), <ChatGPT WAR 1부>(2023.06.23. 플랫폼엘, KADA, NMARA), <창조적 경계: AI문장채굴꾼>(2024.10.10.

CT페어 1섹션)을 연출하며 기획자이자 작가로서도 활동하고 있다.

유은순

학부에서 회화와 예술을 전공하고 미학 박사 과정을 수료하였다. 삶과 예술에 있어 수행적 정체성에 관심을 두고 전시를 기획하고 글을 쓴다. 《틱-톡》(온수공간, 2019), 《수행하는 회화》(This is not a church, 2021), 『(보이지 않는) 협력자들』(범고래출판사, 2024)을 함께 썼다. 현재 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의 학예연구사로 재직하고 있다.

3. 아티스트 토크 신청

- 신청기간 : 2025.4.7.(월) ~ 2025.4.25.(금)
- 경기도미술관 홈페이지→ 경기문화재단 누리집 신청하기
<https://members.ggcf.kr/events/2573>
- 당일 현장 접수 가능

4. 전시 관람 안내

- 관람시간 : 오전 10시 - 오후 6시
(입장 마감 오후 5시)
- 휴관일 : 매주 월요일, 설 당일, 추석 당일
- 관람료 : 무료
- 관람문의 : 031-481-7000
gmoma.ggcf.kr
Facebook @ggmoma
Instagram @gyeonggimoma